

文學碩士 學位論文

D. H. Lawrence의 *Sons and Lovers* 연구

작중 갈등의 의미를 중심으로

Conflicts among the Characters in *Sons and Lovers*

指導教授 朴 正 吉

2006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方 瑞 濤

本 論文을 方瑞潐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李 孝 雄 (인)

위 원 朴 正 吉 (인)

위 원 張 世 銀 (인)

2005년 12월 23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 Abstract	1
I. 서 론.....	3
II. 본 론	
제1장 모델 부부의 갈등	6
제2장 폴과 어머니, 연인들과의 갈등.....	11
제3장 폴의 갈등극복	31
III. 결 론	43
■ 참 고 문 헌	47

Abstract

Conflicts among the Characters in *Sons and Lovers*

Bang, Seo-Yo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D. H. Lawrence(1885.9.11-1930.3.2) was one of the greatest English novelist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lso he is the most controversial figure in the English literature. *Sons and Lovers*, whose subject matter is taken from the experience of the author's early life, is an autobiographical novel. Lawrence was twenty-seven when he finished writing *Sons and Lovers*.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conflicts among the characters in *Sons and Lovers*, D. H. Lawrence's early novel. The conflicts among the characters are surveyed by considering the process of the hero's character-building.

Sons and Lovers, the largely autobiographical story of Paul Morel, is the first piece of fiction that Lawrence completed in the new circumstances of his life with Frieda. Their relationship was the largest single aid in Lawrence's astonishing development from the level of apprenticeship in his earlier two novels, to the artfulness of his third book.

The unbalanced love of the parent prevents their children from forming their own ego and will make the children experience the spiritual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For Lawrence, who went on to live the adventure that Paul approaches, the confusion of sexual roles remained critical in his development. He usually remained true to that delicate sensitiveness; which he noted in women, but he felt undermined as a man in society and threatened as a sexual being by his sense of femininity. It was nearly impossible for Lawrence to identify casually and satisfactorily with men. The unsatisfied need for masculine identification enters all of Lawrence's works. He pursues an ideal of maleness that he could never recognize in the circumstantial world and that his own divided nature could never wholly accept. He proposed sacred fellowships at every level of man's experience, from "eternal" friendships to impassioned national parties and occult priesthoods. In his most ambitious efforts at self-integration, he tried to reorganize whole societies or to imagine new ones, in which his feelings and gifts would not appear inconsistent with manly powers.

As for Paul Morel's final reawakening to life, in the last paragraph of *Sons and Lovers*, we know that Lawrence himself must have re-awakened to life in the same way,

I. 서 론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David Herbert Lawrence:1885~1930)는 중산층 계급 출신 어머니와 광부인 아버지 사이에서 이스트우드 8A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낡은 도덕관과 사회윤리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고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예술관과 인생을 위한 열정이라는 인생관으로 시종일관 철두철미하게 자기 신념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작가였다.

『아들과 연인』(*Sons and Lovers*)은 로렌스의 초기 소설 중에서 그의 작가적 기반을 확고하게 해준 작품으로 그의 어머니인 리디아 로렌스(Lydia Lawrence)가 죽은 직후에 그의 고향 이스트우드에서 쓰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의 초고는 제시 체임버즈(Jessie Chambers)의 제안에 의해 자신의 소년 시절의 실제적인 경험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 후에 그가 1912년 프리다(Frieda)와 유럽으로 여행을 한 후에 그녀의 조언을 받아 한 번 더 수정을 가하여 이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의 원래 표제는 『폴 모렐』(*Paul Morel*)이었으나 후에 『아들과 연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폴 모렐(Paul Morel)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아의 개안을 통하여 자아형성을 이룩하기까지의 생활상이 소설의 주요한 테마로 되어있다.

이 소설에서 로렌스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스트우드가 소설 속에서는 베스트우드라는 지명으로 그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작품 속에는 폴의 가족구성원과 그와 교우했던 여성들과의 관계가 실제 로렌스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작가 자신의 생애에서 초기 25년간에 있었던 경험을 소재로 한 자서전적인 소설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회고록,

전기와 작가자신의 편지 등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렐(Morel)의 가정은 곧 로렌스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풀은 매우 특이한 생래적 신분을 가진 부모를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 자신이 밝히고 있는 1912년 11월 4일의 편지는 이 소설의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If follows this idea: a woman of character and refinement goes into the lower class, and has no satisfaction in her won life. She has had a passion for her husband, so the children are born of passion, and have heaps of vitality. But as her sons grow up she selects them as lovers—first the eldest, then the second. These sons are urged into life by their reciprocal love of their mother—urged on and on. But when they come to manhood, they can't love, because their mother is the strongest power of their lives, and holds them.... As soon as the young men come into contact with woman, there's a split. William gives his sex to a fribble, and his mother holds his soul. But the split kills him, because he doesn't know where he is. The next son gets a woman who fights for his soul—fights his mothers. The son loves the mother—all the sons hate and are jealous of the father. The battle goes 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girl, with the son as object. The mother gradually proves stronger, because of the tie of blood. The son decides to leave his soul in his mother's hand, and, like his elder brother, go for passion. He gets passion. Then the split begins to tell again. But, almost unconsciously, the mother realizes what is the matter, and begins to die. The son casts off his mistress, attends to his mother crying. He is left in the end naked of everything, with the drift towards death(Moor 160-1).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대로 자신이 초기에 의도했던 계획과는 달리 주인공 폴은 어머니를 따라 죽음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향해 자신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활력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이 작품이 그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자서전적인 가족사를 거의 망라하고 있는 만큼 그의 인생역정을 알기 위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있음은 사실이다.

그 내용의 아웃라인은; 거트루드(Gertrude)와 모델 간의 부부생활이 파탄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애정을 쏟지 못하고 그 억압된 그녀의 애정이 아들에게 쏠리게 된다. 그 아들이 성장하여갔지만 애인이 생겨도 아들은 어머니와 애인 사이에서 분열하여 그 연애는 기묘하게 실패가 된다는 플롯을 이 소설은 취하고 있다.

소설의 구성으로 볼 때, 제1부는 그들 부부의 생활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아들 폴의 성장과 그의 두 연인 사이에서 그가 체험하는 청년시절의 고뇌를 그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폴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체험했던 갖가지 갈등의 원인을 재구성함으로써 주인공 폴이 경험하는 갈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 폴의 성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모델 부부의 갈등을 고찰하고, 제2장에서 아들 폴과 모델 부인, 그리고 그의 연인들과의 갈등을, 제3장에서 폴이 이러한 외적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로렌스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폴이 그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작중 인물들과의 겪게 되는 갈등의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제1장 모델 부부의 갈등

작품의 배경은 모델 부부가 살고 있는 더비셔(Derbyshire)의 탄광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이곳 베스트우드라는 로렌스가 태어나고 성장한 이스트우드와 매우 유사하다. 더비셔와 클라이치(Clich) 일대에 광맥이 발견되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더불어 많은 탄광회사들이 그 지역에 모여 들게 된다.

이 소설의 제1부는 모델 부부의 결혼생활과 폴의 젊은 시절을 다루고 있다. 폴의 아버지는 교육도 받지 못한 하류 계층의, 관능적 육체와 불그스레한 피부를 지닌 노래와 춤에 능한 노동계급의 광부였다. 한편 그의 어머니는 중산계급의 출신의 여교사로서 지적이며 교양 있고 청교도적 정신의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이질적인 성격은 크리스마스 파티 도중 그들이 처음 상면하는 상황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거트루드가 지적인 매력에서가 아니고 월터(Walter)의 단순히 건강미가 있어 보이는 육체적 매력에 끌린 것은 엄격하고 금욕적인 성격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녀 자신과는 다른 이질적인 면에 끌렸기 때문이다. 냉정하고 조용하고 섬세한 거트루드에게 월터의 남성적인 매력은 그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He was well set-up, erect, and very smart. He had wavy black hair that shone again, and a vigorous black beard that had never been shaved. His cheeks were ruddy, and his red, moist mouth was noticeable because he laughed so often and so heartily. He had that

rare thing, a rich, ringing laugh. Gertrude Coppard had watched him, fascinated. He was so full of colour and he was so ready and so pleasant with everybody. Her own father had a rich fund of humor, but it was satiric. This man's was different: soft, non-intellectual, warm, a kind of gambling.¹⁾

윌터의 매력은 그의 자연성에서 나오는 생명력이다. 이에 반해 거트루드는 섬세하고 지적이며 정신적인 이념을 사랑하는 여인이다.

She had a curious, receptive mind which found much pleasure and amusement in listening to other folk. She was clever in leading folk to talk. She loved ideas, and was considered very intellectual. What she liked most of all was an argument on religion or philosophy or politics with some educated man.(9)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인 윌터와 거트루드가 서로에게 매혹되는 것은 자신들의 내면세계에 잠재하는 본능적 호기심과 그들은 감각적 즐거움 때문에 성급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되어, 그 다음 크리스마스에 결혼하여 매우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만 극히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공유했던 결혼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청교도적인 아버지에 대해 반발을 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들 간에 심해가는 단절감은 어느 정도는 그녀가 “남편을 친정아버지의 모습에 맞추어 개조(Salgado 9)” 하려는 그녀의 끈질긴 노력 때문이기도 하다.

1) D. H. Lawrence. *Sons and Lovers*, (London: Penguin books Ltd. 1979), p.9. 이하 본문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로 명시키로 함.

The next Christmas they were married, and for three months she was perfectly happy: for six months she was very happy. He had signed the pledge and wore the blue ribbon of a teetotaler: he was nothing if not showy.(19)

모델로 하여금 그녀에겐 관능적 향락의 포기를 나타내는 증거였던 금주주의자의 푸른 리본을 달게 하는 것도 그에게는 겉치레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표가 된다. 따라서 그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후에 알게 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델은 무식하고 방탕한 기질과 남한테 구속받기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비하여, 모델 부인은 종교적인 규범이나 계층향상의 의지에 있어서는 매우 강하다. 또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여자이며, 가정은 자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성격이다. 한편 이 작품에 나타난 모델의 음주에 의한 난폭성은 오만한 부인의 금주주의를 주장하는 종교적 의식 때문에 오는 반발이기도 하다.

남편은 술이 거하거나 취해 집으로 돌아오고 아내는 적적한 집에서 철저한 환멸 속에 빠져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첫 대화는 사소하기는 하지만 현재 두 사람을 갈라놓는 선을 긋는 데 도움이 된다.

“Oh! Oh! waitin' for me, lass? I've bin' 'elpin' Anthony, and what's think he's gen me? Nowtb'r a lousy hae'f-crown, an' that's ivry penny -”

“He thinks you've made the rest up in beer.” said shortly.(14)

여기에는 남편의 개방성과 아내의 고집스러운 부정적 태도가 함께 나

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두 사람을 갈라놓는 말투와 용어의 대조가 있다.

모렐 부인이 처음으로 환멸을 느끼는 단계는 그녀의 남편이 가구 값과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의 소유권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녀가 발견했을 때 일어난다.

“Look here.”

She said at night, after he was washed and had a dinner.

“I found these in the pocket of your wedding coat. Haven't you settled the bills yet?”

“No, I haven't had a chance.”

“But you told me all was paid. I had better go into Nottingham on Saturday and settle them. I don't like sitting on another man's chairs and eating from an unpaid table.”

He did not answer.(12)

지금까지 그녀를 속인 것을 알게 되자 남편이 자기를 속였다는 데 분노하게 되고 남편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미지불된 계산서에 대한 거짓말, 집 소유에 대한 거짓말, 금주하랬다던 거짓말 때문에 남편에 대한 모렐 부인의 감정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그를 경멸하기에 이른다.

천성적으로 모렐은 관능적인 사람이었다. 반면에 아내는 그를 도덕적이고도 종교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모렐 부부의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적인 모렐 부인의 정신적인 사랑의 기대감에 남편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 또한 모렐 부인이 향락적이고 관능적인 남편을 포용하지 못하고 지적이고 고상한 인간이 되기를 억압적

으로 강요하는 데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The pity was, she was too much his opposite. She could not be content with the little he might be; she would have him the much that he ought to be, so, in seeking to make him nobler than he could be, she destroyed him.(16)

그녀는 그와 너무 상반된다. 이것이 그들의 가정불화의 동기가 되고 부부의 불화는 계속 심화되어 간다. 그 후 그는 그 일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여 술로 가책을 완화시킨다.

모렐의 잦은 음주,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항상 도망가려고만 하는 태도 등은 모렐 부인과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점이다. 물론 모렐 부인의 잘못도 있다. 남편의 이런 약점들을 좀 더 부드럽게 다스리지 못하고 경멸감에 가득차서 자신의 마음이 문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내의 차가운 벽에 부딪힌 모렐은 점점 더 약하고 천한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굳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이 모든 불협화음이 두 사람의 너무나 다른 사회적 교육적인 배경과 천성 때문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홉스바움(P. Hobsbaum)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 miner, Morel, is illiterate, no match for his wife in self-consciousness and articulacy. She is a former pupil-teacher with aspirations towards the middle-classes. The story is based heavily in her direction. Nevertheless, the miner is a portrait of some complexity(Hobsbaum 46).

이처럼 그들의 관계는 서로 격이 맞지 않는 부부였음이 잘 지적되고 있다. 이 부부가 진정한 삶의 모습인 화해와 평화로움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의 일면은 경제적인 환경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느끼는 계급적 갈등의 산물이고, 또 좌절과 패배를 느끼고 있는 모렐 부인의 삶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모렐 부인은 비록 이지적이긴 하지만 진정한 삶은 자연의 조화와 균형처럼 사랑의 의지의 균형이라는 점에 대한 예지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모렐 부인은 남편에게서 보상받을 수 없는 문화적 승화의 의지를 자식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녀의 욕망은 돈이라는 물질적 보상과 부르주아 계층으로의 상승이라는 명예를 통한 자존심의 만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광부인 모렐은 그 같은 아내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제2장 아들 폴과 어머니, 연인들과의 갈등

모렐 부인은 남편에게서 그녀가 바라는 희망이 충족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자, 그 대신 장남인 윌리엄(William)에게 자신이 바라는 기대를 건다. 윌리엄은 학급에서 첫째이고 전교에서 가장 영리한 학생이다. 아버지는 그를 별이가 나온 탄광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싶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다르다. 윌리엄의 나이가 13세가 되자 어머니는 그를 공매협회에 취직을 시키는가 하면 야학에 다니면서 숙기를 배우도록 한다.

숙기사, 부기계의 서기, 야학의 교사가 되어 주급이 14실링이나 되는 윌리엄은 노팅험에서 런던으로 옮겨가 연수임 120파운드의 일자리를 마

런하게 된다. 아버지가 누리지 못했던 지위, 경제적인 여유, 부르주아 계급과의 교우,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소망이고 기대이다. 그러던 윌리엄이 어머니와 유지해온 정신적 교류를 애인인 릴리(Lily)와는 공유하지 못한 채 결혼 직전에 갑자기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다.

The doctor came, It was pneumonia, and, he said, a peculiar erysipelas, which had started under the chin where the collar chafed, and was spreading over the face. He hoped it would not get th the brain.(169)

이러한 기대는 윌리엄의 죽음으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모렐 부인은 죽은 윌리엄에게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폴에게로 걸게 된다.

모렐 부인에 있어서 폴은 처음부터 자신과 탯줄로 연결된 아이였고 생래적으로 남편의 사랑과 대체된 연민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모렐 부인은 애정도 없이 태어난 아이에게 모든 힘을 다해서 보상을 다짐했던 것이다.

Once more she was aware of the sun lying red on the rim of the hill opposite. She suddenly held up the child in her hands.

“Look!” she said. “Look, my pretty!”

She thrust the infant forward to the crimson, throbbing sun, almost with relief. She was him lift his little fist. Then she put to her bosom again, ashamed for her impulse to give him back again whence he came.(51)

모렐 부인은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을 향해 마치 태양에서 내뿜어지는 생명의 불길을 아이에게 쏟아서 아이를 정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랑 없이 잉태한 자신의 괴로움에서 한 순간이지만 마음의 구원을 얻는다. 그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속죄됨을 무의식중에 느껴보는 세례와 정화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알래스터 니븐(Alastair Niven)은 이러한 그녀의 행위를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시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역시 원죄에 대한 액막이로서의 의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t may be distantly related to an actual happening about which Lawrence's mother talked, but it is realized poetically and symbolically, an initiation rite(Niven 34).

아들에게서 남편의 대역을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습인 모렐 부인은 남편과의 갈등을 갖게 된다. 이런 관점은 모이나한(Moynahan)도 지적하고 있다.

Mrs. Morel should not have dehumanized her will. Morel should not have hidden his injured feeling behind a shell of brutal cynicism(Moynahan 568).

이렇듯 모렐 부인이 남편의 인간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렐 부부는 그들 각자의 정신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다른 행로를 모색한다. 모렐은 가정보다 광산생활과 술집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는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반면 모렐 부인은

그 고독을 아이들에게 쏟는 애정과, 후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져다 줄 사회적 성공과 부에 대한 기대로 대신 채우는 것이다. 즉, 표면상으로는 강인해 보이는 모델 부인도 남편을 통해 만족시킬 수 없던 정신적 측면을 채워줄 대체물이 필요한 것이다.

William had brought her his sporting trophies. She kept them still, and she did not forgive his death. ...But Paul was going to distinguish himself. She had a great belief in him, the more because he was unaware of his own powers. There was so much to come out of him. Life for her was rich with promise.(204)

윌리엄의 죽음은 그녀에게 그 대체물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곧 그 대체물은 폴로 대체된다.

로드니 힐만(Rodney Hillmann)은 "...the story of Paul's brother, William, foreshadows Paul's own difficulties as son and lovers(Hillmann 4)."라고도 하고 있다. 윌리엄의 죽음이 남긴 것은 결국 영육에의 욕구에 대한 균형적 조화의 실패에서 온 것으로 보아 이 비극적 분열이 아들과 애인으로서의 폴의 의식에 어떤 균열을 초래할 불길한 징조로 작용하리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견해로 풀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윌리엄이 보여준 역할을 유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모델 부인의 사상에서 비롯된 지나친 소유의지가 텅 빈 살아갈 수 없다는 윌리엄의 생명력에의 결의와 처음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해 준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사상 때문에 희생되어온 생명력에의 의지를 강도 높게 노출시켰으며 바로 이런 상황에 폴이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폴은 부모의 격렬한 싸움의 갈등사이에서 자란다. 모렐 부인은 경제적 여유와 희망이 사라진 가정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에 깊은 회의를 품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은 현실과 이상, 물질과 정신, 규제와 자유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렐 부인은 폴의 출생에 대해 죄의식을 지니고 있다.

With all her force, with all her soul she would make up to it for having brought it into the world unloved. She would love it all the more now it was here: carry it in her love.(37)

이와 같이 느끼는 죄의식은 모렐 부인이 폴을 사랑하려는 결심을 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된다.

남편 모렐이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일어난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던진 서랍에 맞아 이마에 상처를 입은 모렐 부인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어린 폴의 머리에 떨어져 수많은 머리카락을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본다. 이것은 두 사람의 삶이 피로 이어져 강하게 연결되리라는 암시와 폴의 자아실현에도 어머니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His face was crimson, his eyes bloodshot. He stared at her one silent second in threat. "P-h!" She went quickly, in contempt. He jerked at the drawer in his excitement. It fell, cut sharply on his shin, and on the reflex he flung it at her. One of the corners caught her brow as the shallow drawer crashed into the fireplace. She swayed, almost fell stunned from her chair. To her very soul she was sick; she clasped the child tightly to her bosom. A few moments elapsed;

then, with an effort, she brought herself to. The baby was crying plaintively. Her left brow was bleeding rather profusely. As she glanced down at the child, her brain reeling, some drops of blood soaked into its white shawl;(39)

모렐 부인은 남편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녀는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이라는 이유로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육체적으로는 강하지만 책임감과 이성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가정에서 도피하기 위해 술집이란 도피처를 찾아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남편과의 싸움은 난폭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렐 부인은 남편에게서 멀어져가는 만큼이나 폴과 더 가까워지고 폴은 아버지와 멀어져가는 만큼이나 어머니와 더 가까워져 겨울밤의 어둠처럼 깊은 교감의 영역으로 모자는 빠져들고 있다.

폴의 영혼은 어머니에게서 이심전심으로 투영된 정의적 정서와, 어머니가 간직해온 고통과 고뇌, 상념과 조바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폴의 사고 범주에는 모렐 부인의 아이디어가 침투해 있고 판단의 가치기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폴에게 투영된 모렐 부인의 감정이 여과됨이 없이 폴에 의해서 표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음으로 해서 이제 폴은 모렐 부인과의 정신적인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장 발달의 단계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샌더스(S. Sanders)는 폴과 모렐 부인이 처한 상황을 나레이터의 말을 곁들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Few words need be exchanged between mother and son; because so much is understood, so much can be left unspoken. Already the two have drawn very close together in feeling and outlook.

When she fretted he understood, and could have no peace. His soul seemed always attentive to her(Sanders 27).

어머니가 증오하는 상태보다도 폴에게는 그 이상의 심리상태가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폴은 어머니의 성향을 따라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심리상태가 표출되고 있다.

Paul hated his father. As a boy he had a fervent private religion. "Make him stop drinking." He prayed every night. "Lord, let my father die." He prayed very often.(60)

어머니에게로 편향된 폴의 성향이다. 드디어 폴은 한 단계 더 심화되어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에도 이르기까지 한다. 어머니를 독점하겠다는 심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증오하게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쇠잔해져가는 모렐의 육신은 그것이 오직 개인적 원죄의 표정이 될 뿐, 가장으로서 헌신한 보람에 대한 어떤 온후한 인간미나 관대한 동정심은 그의 행동에서 나타난 저급한 속임수와 무용한 난폭성을 이유로 평가하기는커녕 "He was shut out from all family affairs." (81)라 하며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꾀하는 것이다.

낮은 교육수준, 그것은 모렐이 그의 부인을 만난 이래로 언제나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점이였다. 그런데 나레이터는 여기서 폴과 아버지 모렐을 대비시켜 폴의 성장 발달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신문의 글짓기 현상 공모에 폴이 당선된 사실이 그것이다.

신문도 겨우 읽는 모렐은 아들의 글짓기 현상공모 당선이 대단한 기쁨일 수는 없다 해도 흥미의 대상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린 폴

이 어머니의 교육에 의지 덕분에 이제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지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암시해 줄 뿐, 아버지 월터가 이야기의 명수였다던 그 재기는 차단된 채 무력한 아버지로 쳐져 버린 인상만 짙게 나타내 줄 뿐이다.

“I've won a prize in a competition, Dad.” he said.

Morel turned round to him.

“Have you, my boy? What sort of a competition?”

“Oh, nothing about famous women.”

“And how much is the prize, then, as you've got?”

“It's a book.”

“Oh, indeed!”

“About birds.”

“Hm-hm!(81-2)

이 대화 속에는 어머니에게 지배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거부감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나레이터로서 로렌스가 펼치는 이른바 매우 흔치 않은 작가의 개인적 철학에서 나오는 부당한 간섭이 작용하고 있다.

부자간의 소외는 윌리엄이 월터에게 품었던 혐오감에서 비롯된 소외와는 근본적으로 꽤 다르다 할 수 있다. 즉 성격상의 포악성, 부르주아의 매너에 대한 외면과 그들이 누리는 문화에 대한 무관심, 교양과 사교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 등에서 드러난 월터와 모렐 부인 간의 가치관의 상극, 이런 것들이 그들 사이를 한계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여기서는 월터가 원만한 인격자로 발전할 수 없었던 원천적 요인이 탄광이라는 환경적인 제약에 있지 않고 자기 관리를 통한 차 상급의 생활로 발돋

움하려는 승화에의 의지가 결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래서 그를 불행한 처지를 극복하려는 정열이 식어버린 비관적 인물로 규정하고 아내의 기대에 찬 욕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육적 배경이 일천한 데서 오는 자아입지에의 능력부재라는 꼬리표를 닮았으므로 상위 계급에의 기적 같은 탈출을 실현 못한 그를 부당하게 무력화시키고 폴을 가족 구성원의 영향권에 좀 더 가까이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모델 부인이 펼치는 승화에의 의지가 아들에게서 성공했다는 예증일 뿐이다.

그녀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폴과 모델 부인간의 유대관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나레이터의 견해가 개입된 에피소드의 서술은 모자간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느 날 아버지 모델이 갱내에서 작업 중 심한 부상을 당해 노팅햄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I’m the man in the house now.” , he used to say to his mother with joy. They learned how perfectly peaceful the home could be. And they almost regretted—though none of them would have owned to such callousness—that their father was soon coming back.(112)

아버지가 탄광에서 다리를 다쳐 입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남편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할 부인이 그의 모든 희노애락을 부지중에 아들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 14살 폴이 내뱉은 말이다. 그가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면 아버지의 고통을 염려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의 부상으로 폴은 어머니를 독점하게 됨을 기뻐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폴은 어머니의 강력한 지배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자간의 사랑이 아닌 비정상적인 애정의 연속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당하고 어머니의

그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폴은 자신이 독립된 자아로서의 성장을 어머니에게서 방해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모자 관계가 자신을 과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세이모어 베스키(Seymour Betsky)는 다음과 같이 이들 모자간의 관계에서 “애정”과 “증오심”을 공유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연인의 관계성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Moreover, by sharing intimately their developing idea, their crises, their deepest affections and hatreds at the most impressionable time of their lives, she possesses them as individuals and defeats them, almost, lovers(Betsky 135).

폴은 결국 어머니를 향한 애정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소유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델 부부의 비정상적인 부부생활은 폴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장애요소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출생과 더불어 사랑이 충만된 가정과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보장되어야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결국 아들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정신적 의지가 폴로 하여금 이상적인 남녀관계에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폴은 의료기구 상사의 견습사원으로 일하면서 점차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폴은 어머니의 일방적인 정신적 구속 하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이성으로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여인이 미리엄(Miriam)이다. 그녀는 로렌스가 헤그스(Haggs) 농장에서 만난 농장 주인의 딸인 제시 체임버스가 그 모델이다. 제시 체

임버스는 나중에 탄광촌에서 교편을 잡게 되는 대단히 교양 있고 지적인 여인으로서 로렌스와 친교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이다. 또한 로렌스가 쓴 몇 편의 시를 *The English Review*에 투고하여 그가 시인으로 등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창작에도 커다란 활력을 주었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들과 연인』을 쓸 때부터 완성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조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과 미리엄이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그가 15세가 되던 해 어머니와 함께 레이버스(Leivers)의 가족이 살고 있는 윌리농장(Willey Farm)을 방문하였을 때이다. 19살이 된 폴은 윌리농장을 자주 찾아와 미리엄이란 처녀를 만나 이성으로서의 인간관계에서 차츰 애정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로렌스는 사춘기 남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미리엄과의 관계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그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리엄은 폴에게 있어 최초의 이성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미리엄은 정신적이고도 종교적 세계에 깊이 침착하고 있는 여성이다. 작품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The girl was romantic in her soul. Everywhere was a Walter Scott heroine being loved by men with helmets or with plumes in their caps. She herself was something of a princess turned into a swine-girl in her own imagination.... So to Miriam, Christ and God made one great figure, which she loved tremblingly and passionately when a tremendous sunset burned out the western sky....(142)

여기서 미리엄에 대한 로렌스의 언급을 보이면 그녀를 깊은 종교적 신

양심과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이상주의자로 묘사되고 있다.

폴이 미리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렐 부인은 그녀에게 심한 적대심을 나타내며 폴에 대한 정신적인 관계를 지키려고 한다. 폴이 미리엄을 만나고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이런 자신의 태도를 그녀 때문에 기인되는 것이 아님을 애써 숨기면서 그런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합리화 하고 있다.

“She exults—she exults as she carries him off from me.” Mrs. Morel cried in her heart when Paul had gone. “She's not like an ordinary woman, who can leave me my share in him. She wants to absorb him. She wants to draw him out and absorb him till there is nothing left of him, even for himself. He will never be a man on his own feet—she will suck him up.” So the mother sat, and battled and brooded bitterly.(192-93)

모렐 부인이 폴에게 경고한 것처럼 미리엄은 폴에게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그의 영혼을 빨아먹어 버리고 싶어 하는 여인이다. 모렐 부인은 미리엄의 사랑이 폴을 자립할 수 없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렐 부인도 미리엄과 마찬가지로 폴이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 자아실현을 향해 발전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인물이다. 비평가 유디쉬트(Yudhishtar)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Ironically, however, what she says of Miriam's influence on her son—that on trying to absorb all of him she would never let him be a man on his own feet—is equally true of her own relationship with him...but she is not aware that as long as she herself lives her life

through Paul... there is no possibility of his realizing himself(Yudhishter 95-96).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엄과 폴의 사랑은 계속된다. 폴을 정신적으로 강하게 구속하고 있는 어머니는 미리엄과의 교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리엄은 남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사랑은 원치 않으며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폴을 육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믿는다. 미리엄은 그렇게 순결한 사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폴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한다.

“O Lord, let me not love Paul Morel. Keep me from loving him,
if I ought not to love him(171)

그러나 미리엄의 내면세계에서는 폴과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폴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희생하는 마음으로 폴을 사랑하겠다고 말한다.

“But, Load, if it is Thy will that I should love him, make me love him—as Christ would, who died for the souls of men. Make me love him splendidly, because he is Thy son.” (171-72)

그래서 미리엄은 폴과의 만남을 신의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고 폴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의식의 발로인 자기희생을 통해 자신이 폴을 소유하겠다는 정신적인 욕망의 표현이다.

하지만 폴과 미리엄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폴이 어머니에게 정신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미리엄과의 사랑이 정신적인 요소와 육체적인 요소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폴의 본능은 이성에게 느끼는 육체적인 욕망을 미리엄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이런 폴의 육체적인 욕망에 대해 미리엄은 육체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조화된 이상적인 남녀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지나친 종교적 성향은 두 사람의 사랑을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할 뿐이다. 그래서 폴은 미리엄을 사랑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영혼을 빼앗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폴이 완전히 두 여인에게서 독립된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에서 벗어나 육체와 정신이 조화된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폴은 추상적이고 형식화된 사랑으로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없으며 정신적인 사랑의 무익함을 전하는 고별의 편지를 미리엄에게 보내게 된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생각되는 미리엄을 폴은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 폴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녀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다.

You see, I can give you a spirit love, I have given it you this long, long time; but embodied passion. See, you are a nun. I have given you what I would give a holy **nun**—as a mystic monk to a mystic nun. Surely you esteem it best. Yet you regret—no, have regretted—the other. In all our relations no body enters. I do not talk to you through the senses—rather through the spirit. That is why we cannot love in the common sense.(251)

폴은 미리엄과의 육체적 접촉에서 위축감을 느끼고 그녀 안에 극복할 수 없는 순결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접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사랑 때문에 미리엄과의 관계에서도 그녀가 어머니처럼 생각되어 육체적인 접근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They could easier deny themselves than incur any reproach from a woman; for a woman was like their mother, and they were full of the sense of their mother. They preferred themselves to suffer the miserly of celibacy, rather than risk the other person.
(279)

폴은 결국 미리엄에게 ‘우리는 애인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하면서 절교한다. 그는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미리엄의 순결성과 추상적이고 형식화된 정신적인 사랑은 이미 어머니에게서 충족되었으므로 육체적인 욕망의 충족만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미리엄은 폴을 육체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완전히 소유하려 하면서도 폴로 하여금 첫 육체적 접촉을 실패로 끝내게 하는 패배감을 인식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리(Murry)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Miriam's charity was passionate, but she had no sexual desire for Paul: Paul's need for the release and rest of sexual communion was passionate, but not his desire for Miriam. Each was a divided and tortured being. Miriam strove to subdue her body to her spirit, Paul strove to subdue his spirit to his body. They hurt themselves, and they hurt each other(Murry 102).

위의 언급에서 볼 때 폴 또한 미리엄에게서 성적 갈망을 충족하려 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녀도 성적 갈망이 없었다. 이것이 그들 양자로 하여금 깊은 상처를 남기게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돌아온 폴과 어머니 사이는 평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육체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폴의 갈망은 그의 내면세계 깊숙이 잠재하고 있게 된다. 때문에 그로부터 2.3년이 지나서 폴은 미리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폴과 미리엄은 다시 만나게 된다. 오랜만에 두 사람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미리엄의 태도는 변한 것 같이 느껴진다. 폴은 이번에는 솔직하게 미리엄의 육체를 요구하고 나선다. 미리엄은 폴의 영혼을 차지하려는 투쟁을 단념하고 그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육체를 그에게 바치기로 결심이 서있는 듯이 보인다.

“You don't think if ugly?” he asked.

“No, not now. You have taught me it isn't.”

“You are afraid?”

She calmed herself hastily.

“Yes, I am only afraid.” she said.

He kissed her tenderly.

“Never Mind.” he said, “You shall please yourself.”

Suddenly she gripped his arms round her, and clenched her body stiff.

“You shall have me.” she said, through her shut teeth.(346)

이와 같이 해서 폴이 미리엄에게 마치 “그녀가 종교적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려는 듯한 태도(김동선 78)”를 깨달았을 때 그는 심사숙

고하는 신중한 인간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To be rid of our individuality, which is our will, which is our effort—to live effortless, a kind of conscious sleep—that is very beautiful, I think; that is our after—our immortality.(351)

폴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경지는 체념한 눈초리를 하고 마치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누워있는 미리엄과의 육체적 접촉에서는 도저히 실현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폴은 제물로 바쳐질 짐승 같은 그녀의 눈초리를 보았을 때 미리엄과의 육체관계에서 크게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와 같은 폴과 미리엄의 분열되고 왜곡된 연애 관계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폴은 미리엄과의 관계가 실패한 원인을 자신의 나약한 성격 때문이라는 반성을 통해서 미리엄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로 미리엄을 대하는 폴의 욕망에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미리엄의 태도는 폴의 자아를 분열시킨다. 이 점에 대해 키이스 세이거(Keith Saga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All this prepares for the ultimate when Paul goes back to Miriam to try to break sown spirituality through a physical consummation, and achieve, instead, only a ritual slaughter(Sager 27).

결국 폴은 미리엄의 이런 육체적인 관계는 둘 다 만족할 수 없고 미리엄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폴의 내면세계에서 파생되는 갈등은

어머니의 정신적인 구속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폴은 어머니의 정신적인 구속과 미리엄의 희생적인 종교적이고도 정신에 바탕을 둔 사랑이라는,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한 여인이 클라라(Clara)이다. 로렌스는 이 작품에서 미리엄과의 사랑에 실패한 폴에게 클라라를 등장시켜 폴의 육체를 맹목적으로 소유하려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미리엄과의 관계가 끝나자 폴은 클라라에게 간다. 클라라는 그 시대가 배출한 “신여성(Beal 35)”이다.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혼자서 생계를 손수 벌고 있다. 그녀는 여권신장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학을 한다. 클라라의 등장은 기독교적인 신앙, 순결, 지성을 상징한다고 보여지는 미리엄에게서 추구하지 못한 이상적인 남녀관계의 결핍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육체적 욕망으로 충만 되어 있는 클라라에게 관심을 갖는 폴에게는 새로운 이상적인 남녀관계의 추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폴이 클라라를 만났을 때 남편인 백스터(Baxter)와 별거 중이었고, 폴보다 다섯 살이 위인 연상의 성숙한 여인이다. 폴이 클라라를 처음 만났을 때 미리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능적인 분위기가 소박하고 평범한 원시적 자연미 속에서 감돌고 있다.

She had scornful grey eyes, a skin like white honey, and a full mouth, with a slightly lifted upper lip that did not know whether it was raised in scorn of all men or out of eagerness to be kissed, but which believed the former. She carried her head back, as if she had drawn away in contempt, perhaps from men

also. She wore a large, dowdy hat of black beaver, and a sort of slightly affected simple dress that made her look rather sack-like. She was evidently poor, and had not much taste.(184-85)

폴은 클라라를 통해서 미리엄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충족감을 발견하고 어머니와 미리엄 사이에서 방황하고 좌절했던 정신적인 구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클라라는 신여성으로 여권운동에도 참여하고 폴의 육체를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한다.

폴은 어느 날 클라라를 방문했을 때 현실의 굴욕 속에서 생계를 위해 조용히 뜨개질을 하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생명이 정체된 것 같은 모습을 보고 무의식중에 그녀를 구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클라라는 폴의 육체적인 넘치는 듯한 생명력을 발견하고 매력을 느끼며 폴을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상적인 남자로 생각한다.

미리엄은 폴과 클라라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폴은 지적인 사람이므로 클라라와의 육체적인 사랑은 곧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폴은 클라라로부터 그가 열망하던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클라라 역시 폴을 통해 상처받은 육체적 자존심이 회복됨을 느낀다. 미리엄은 폴과 클라라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자신과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을 폴이 찾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폴이 무의식적으로 분열의 원인을 찾고자 고민하는 가운데 클라라를 끌어들이고 있다.

There was something else he wanted. He could not be satisfied; he could give her no peace. There was between them now always a ground for strife. She believed that his chief need in life was herself....

She believed that there were in him desires for higher things, and desires for lower, and that he desire for higher would conquer.(228-29)

미리엄이 폴에게 바치는 사랑을 ‘higher things’라 한다면 폴이 원하는 사랑은 ‘lower things’인데, 폴은 미리엄에게서도 클라라에게서도 ‘lower things’를 갈망하고 있다. 미리엄은 폴에게 그녀의 사랑인 ‘higher things’와 클라라의 사랑인 ‘lower things’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 사랑인가를 터득시키기 위해 세 사람이 농장에서 만나지만, 폴은 미리엄이란 존재를 완전히 망각한 듯이 클라라와 있고 싶어 하고, 그녀의 육체적 매력에만 몰두하는 듯이 보인다.

클래프톤 마을(Clifton Village)에서의 사랑에 대한 폴과 클라라의 감정은 마치 그들의 만남은 자연의 한 의식처럼 아무런 제약도 없어 보이기도 한다.

They went on into Clifton Village. He was madly in love with her; every movement she made, every crease in her garments, sent a hot flash through him and seemed adorable.(312)

비로소 클라라는 육체적 욕망의 좌절에서 새롭게 활력을 찾고 폴도 어머니의 정신적인 구속과 미리엄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육체적인 욕망의 충족으로 이상적인 삶을 찾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성적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상적인 남녀관계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욕망의 충족을 위한 쾌락의 노예가 되어간다. 폴은 육체적으로 클라라를 사랑할 수 있으나, 자신의 영혼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매여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폴은 쾌락만을 좇아 서로의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클라라와의 관계를 청산해야겠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결국 폴의 사랑은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의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정신적인 사랑은 미리엄과 육체적인 사랑은 클라라와 할 수 밖에 없는 불균형하고 부조화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클라라는 폴의 영혼과 육체를 자신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못함을 알고 폴과의 이별을 예견한다. 그리고 폴도 클라라와의 관계가 이상적인 남녀관계가 되지 못함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클라라와 헤어져야 할 것임을 말한다.

“You know, mother, I think there must be something the matter with me, that I can't love. When she's there, as a rule, I do love her. Sometimes, when she talks and criticizes, I often don't listen to her.” (350)

폴은 더 많은 실패에 따르는 좌절을 책임지거나 합리화하기 전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 실패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의 실패는 결국 자기정리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장 폴의 갈등극복

폴은 지금까지 자기 주도가 아닌 남의 의도에 따라 영향을 받아 왔다.

따라서 지금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어떤 가치를 찾아 나서야 할 단계에 왔다. 그는 어머니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His life wanted to free itself of her, It was like a circle where life turned back on itself, and got no farther. She bore him, loved him, kept him, and his love turned back to her, so that he could not be free to go forward with his own life, really love another woman. At this period, unknowingly, he resisted his mother's influence. He did not tell her things: there was a distance between them.” (420)

폴은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 위하여,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책임을 벗어나 보려고 “She's fearfully in love with me, but it's not very deep.” (426)라며 자기변명을 하고 나서자, “But quite as deep as your feeling for her.” (426)며 어머니가 폴에게 응수해 올 때,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폴의 문제의식은 보다 형클어진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폴은 이 시점에서 더더욱 자기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의 이런 생각은 어머니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강도 높은 빌미로 작용한다. 그는 미리엄도 클레어도 다 같이 자신을 잡아두지 못한다고 평했다. 더 나아가 그는 “—But why—why don't I want to marry her or anybody?—” (426)라며 침울한 기분에 싸여 거의 탄식에 가까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사실 폴은 클라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오직 육체적임을 깨닫고 클라라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음을 깨닫는다.

“But no, mother. I even love Clara, and I did Miriam; but to give myself to them in marriage I couldn't. I couldn't belong to them. They seem to want me, and I can't ever give it them.”

“You haven't met the right woman.”

“And I never shall meet the right woman while you live.” he said.(427)

폴은 클라라와의 육체관계에서 미리엄과의 관계에서 얻지 못했던 만족감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만족감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았다. 제물처럼 몸을 바친 미리엄과는 달리 클라라는 끝없이 폴의 전부를 차지하려고 들었다. 그녀가 남편을 손 안에 넣으려고 했듯이 폴을 자기의 자아 속에서 해소하려 하였다.

Together they had received the baptism of life, each through the other; but now their missions were separate. Where he wanted to go she could not come with him. They would have to part sooner or later. Even if they married, and were faithful to each other, still he would have to leave her, go on alone, and she would only have to attend to him when he came home. But it was not possible.(439)

클라라는 폴의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자 짜증을 낸다. 폴의 영혼의 열쇠를 쥐고 있고 그의 생활의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늘 뒤에 있다. 그러나 클라라는 폴의 전부를 요구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논쟁한다.

“He(Dawes) didn't!” protested Paul.

“He did! At any rate, he did respect me, and that's what you don't do.”

“It looked as if he respected you!” he said.

“He did! And he loved me a thousand times better than ever you do.”

“All right.” said Paul.

He only wanted to be left alone now. He had his own trouble, which was almost too much to bear. Clara only tormented him and made him tired. He was not sorry when he left her.(466)

자기의 주장을 폴이 들어주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클라라는 남편에게 돌아가고 만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폴로 하여금 정말로 그녀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폴과 클라라와의 육체적 관계 위주의 사랑은 끝이 난다. 클라라에게서 폴은 자아성취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미리엄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공허한 것이다. 따라서 폴은 미리엄과 클라라의 그 어느 쪽 과도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폴이 클라라에게 “If I start to make love to you, I just go like a leaf down the wind.”(442)라고 말하자 클라라는 “And leave me out of count.”(442)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바람에 날리어 떨어져가는 나뭇잎”은 폴의 지성과 의지에 나타난 표면적인 자아의 소멸을 뜻하는 것으로 “And then it is nothing to you?” (442)라고 묻는 폴의 내심은 차라리 클라라를 향한 처절한 실망감으로 가득 찬 안타까움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위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없다 하겠다. 클라라는 폴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폴 또한 행복할 줄 아는 남자를 그녀가 찾고 자기처럼 절대로 패배를 모르는 남자를 클라라가 찾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클라라와 폴 사이의 실패를 마크 스피카(Mark Spilka)는 이렇게 설명한다.

Since Clara really needs her stable, personal, daytime lover, she agrees to the reunion. She fails with Paul because of her won short comings for (along with her possessiveness) she lacks the capacity, the breadth of being, to take on the full burden of his trouble soul(Spilka 74).

폴과 클라라가 각각 그들의 교제를 통하여 생명의 세례를 얻었으나 지금은 서로 다른 자기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로렌스는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Where he wanted to go. She could not come with him.” (439) 이라고 말함으로써 폴과 클라라를 간단히 갈라놓고 있다. 즉 클라라는 남편인 백스터에게로 돌아가고 폴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최대의 시련 앞에 서게 된다.

가족들은 모델 부인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She's been having these pains for months at home, and nobody looking after her.(451)

어머니의 병세가 그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을 두고 애니(Annie)의

말은 아들과 어머니 간의 허위와 가식의 단을 엿보게 해 주는 장면이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도 아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암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을 때 아들도 어머니와 똑같은 진통을 겪는다.

He felt as if his life were being destroyed, piece by piece, within him. often the tears came suddenly. He ran to the station, the tear-drops falling on the pavement. Often he could not go on with his work. The pen stopped writing. He sat staring, quite unconscious. And when he came round again he felt sick, and trembled in his limbs. He never questioned what is was. His mind did not try to analyse or understand. He merely submitted, and kept his eyes shut; let the thing go over him.(469)

마침내 폴은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다량의 몰핀을 어머니에게 먹인다. 아들이 지극히도 사랑하였던 어머니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생을 마친 것이다. 그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듯이 보이는 어머니의 시체 앞에 선다. 폴은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을 것만 같다.

She lay raised on the bed, the sweep of the sheet from the raised feet was like a clean curve of snow, so silent. She lay like a maiden asleep. With his candle in his hand, he bent over her. She lay like a girl asleep and dreaming of her love. The mouth was a little open, as if wondering from the suffering, but her face was young, her brow clear and white as if life had never touched it. ...She would wake up. She would lift her

eyelids. She was with him still. He bent and kissed her passionately. But there was coldness against his mouth. He bit his lip with horror. Looking at her, he felt he could never, never let her go. No!(485-6)

사랑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들은 어머니를 안락사 시킨 결과 마침내 어머니는 평화롭게 영면하지만 아들은 애인을 잃은 절망적인 고독감에 빠진다.

미리엄이 폴의 청춘에 속하는 여인이라면 클라라는 성장한 폴의 인생과 세속에 속하는 여인이라 할 수 있다. 성장과정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이 두 여인을 통해 폴은 자아개안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은 폴에게 전혀 새롭고 완벽한 소외감을 주고 만다. 그는 폴이 죽고 외로움을 느끼며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뒷받침한 것은 어머니였음을 절실히 느끼고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같다.

Now she was gone, and for ever behind him was the gap in life, the tear in the veil, through which his life seemed to drift slowly, as if he were drawn toward death.(495)

그는 누구인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클라라도 떠나고 아버지도 떨어져 살고 있었기에 그에게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다.

Everything seemed so different, so unreal, There seemed no reason why people would go along the street.(498)

그는 자기 주위의 세상과 생활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느낀다. 더

오래 지속되었더라면 자신을 파괴해 버렸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다행이지만 이 자유가 그에게 소외와 고립을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이 반드시 폴에게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폴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려 한 어머니를 죽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공유해온 생활의 붕괴가 가져다주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와 그에 대한 대체의식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What am I doing?”

And out of the semi-intoxicated trance came the answer; “Destroying myself.”

Then a dull, live feeling, gone in an instant, told him that is was wrong.

After a while, suddenly came the question; “Why wrong?”

Again there was no answer, but a stroke of hot stubbornness inside his chest resisted his own annihilation.(499-500)

여기에서는 어지럽게 고뇌하는 폴의 모습이 있다. 자신을 붕괴시킴으로써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떠나려 하는 폴의 중심을 잃은 영혼은 다른 한편에서 강하게 반발해 오는 생명력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클라라와의 관계에서 꺾이지 않았던 폴은 생명력이 부정되고 승화에의 의지만이 강조되어 교양과 정신지향적 의식을 통하여 중류계급에의 사상의 고취를 열렬히 고집해온 어머니와 맞서서 하층계급의 생명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또한 백스터와의 일련의 접촉을 통하여 클라라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을 시도함으로써 “소년다운 꿈”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어머니의 지론을 넘어 이제 자신의 성숙된 의지를 펴 보

이게 그는 자신을 구출하고 생동하는 남성으로서의 자아를 소생시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지금 자신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어머니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향한 의지만이 소용될 뿐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의지는 폴의 다음과 같은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나있다.

And his soul could not leave her, wherever she was, Now she was gone abroad into the night, and he was with her still. They were together. But yet there was his body, his chest, that leaned against the stile, his hands on the wooden bar. They seemed something, Where was he?....

"Mother!" he whispered—"Mother!"

She was the only thing that held him up, himself, amid all this. And she was gone, intermingled herself. He wanted her to touch him, have him alongside with her.

But no, he would not give in. Turning sharply, he walked towards the city's gold phosphorescence. His fists were shut, his mouth set fast. He would not take that direction, to the darkness, to follow her. He walked towards the faintly humming, glowing town, quickly.(510-511)

사방에는 커다란 어두운 적막이 밀려 닥쳐도 그는 결코 굴복하여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밝은 세상을 향해 빨리, 아니 활기 있게 걸어간다. 힐만(Hillman)은 폴의 굴하지 않고 밝은 세상을 향할 수 있는 바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Paul's position is certainly bleak, but throughout the novel,

despite his confusion and self-division, we have been made aware of a vitality in him, and this vitality may not be discounted, for all the evidence of a contrary, deathward movement(Hillman 8).

폴의 성장과 자아추구에 영향을 끼친 모델 부인, 미리엄 그리고 클라라, 이 세 여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의 완벽한 신의를 공유하지 못했고 동시에 그를 지배하지도 못했다. 그들의 사상과 감정은 각기 다른 전통의 바탕 위에서 있었다.

그리고 마크 스피카(Mark Spilka)가 논평한 바와 같이 “어머니가 그에게 생명의 온기를 주고 미리엄이 그를 백열화 했으며 불같은 정열로 폴로 하여금 성숙에 다가 가도록 클라라가 영향을 준 것(Spilka 84)”도 사실이지만, 이들 세 여인은 모두가 단편적으로 자신의 편협한 관념의 세계에 사로잡혀 오로지 자신의 닫힌 세계 속에서만 폴과의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미리엄과 클라라는 성장배경이 전혀 다른 인물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미리엄이 시골인 베스트우드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클라라는 도시인 노팅햄과 관련을 맺고 있다. 미리엄이 여성의 전형이라면 클라라는 당대로 보아 미리엄과 거리가 있는 현대여성이었다. 폴과 그의 연인들과의 관계를 달레스키(Daleski)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Paul's relationship with Clara is the obverse of that with Miriam. It serve, therefore, not only as structural balance...but as harsh confirmation of Mrs. Morel's power over her son(Daleski 70-74).

이것은 폴의 미리엄과 클라라와의 관계는 거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모델 부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니, 미리엄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클라라가 그것을 얻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폴이 클라라에게 끌린 것은 그녀가 미리엄과는 다르기 때문이며 클라라가 한때는 그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만 그가 추구하고 있는 충족감과 성취감을 주지는 못한다. 폴이 미리엄과의 사랑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미리엄이 정신적 차원에서 서로의 관계를 확립시키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폴은 그녀와 헤어지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폴이 만족을 얻지 못한 것은 성적인 면에서 미리엄이 구속 없이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폴의 어머니의 강한 영향으로 그의 영혼이 서로의 관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폴이 클라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녀의 독립된 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만 필요한 여자로 대하였기 때문에 역시 만족스러운 관계가 발전하지 못한다.

폴은 어머니의 영향력을 회의하고 이에 반항하면서 이미 개인적인 자아를 추구할 수 있는 정신적 이유기의 문턱을 넘고 있었고, 클라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 정념의 애욕은 이미 실험을 끝내 두고 있다. 그동안 상아 같은 창백함이 떠돌던 어머니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갔으며 모델 부인에게 묶여 있던 폴의 생활도, 클라라와 폴과의 관계도, 다 함께 소원해져 간다.

미리엄을 버리고, 클라라와 헤어지고, 그의 생의 지주였던 어머니와 사별한 폴은 로렌스 자신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죽음을 향해 표류하는(Huxley 77)”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패배자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듯 보인다.

He didn't want to die; he would not give in. But he was not afraid of death. If nobody would help, he would go on alone.
(495)

이 작품의 마지막 페이지는 주인공의 밝은 희망이 암시되어 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She was the only thing that held him up, himself, amid all this. And she was gone, intermingled herself. He wanted her to touch him, have him alongside with her. But no, he would not give in. Turning sharply, he walked towards the city's gold phosphorescence. His fists were shut, his mouth set fast. He would not take that direction, to the darkness, to follow her. He walked toward the faintly humming, glowing town, quickly.(510-11)

이 작품의 마지막은 주인공의 살고 싶은 욕망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충분한 능력을 입증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위하여 어머니를 비롯한 연인들과의 장애를 허물어야 하는 폴의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폴은 끝 부분에 가서 폴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 상태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설의 말미에 오게 되면 폴은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뛰어나와 불빛 찬란한 도시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III. 결 론

『아들과 연인』은 주인공 폴이 상황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아울러 적극적인 실천을 보여주며 사람이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의 두 요소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나 그 양자 모두가 중요하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는 반드시 행복한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아버지의 육체적 요소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주인공 폴은 어머니의 정신적 요소를 동시에 물려받아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조화점을 찾지 못하고 분열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모델 부부간의 계층에서 오는 이질성은 이들이 그 갈등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이 가진 상이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독립된 개체가 가진 특질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치명적인 대립은 결국 각자의 만족을 찾아 다른 행로를 모색하게 만든다. 그 갈등에서 승자이든 패자이든 정신적인 공허감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아들과 연인』에서 모델은 가정에서 얻지 못한 심리적 안정을 광산과 술집에서 얻는다. 모델 부인은 부부생활에서 만족시키지 못한 정신적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아들을 더욱 사랑한다. 모델 부인은 강자로서 폴을 지배하면서 실상 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정신적 고독을 채운다.

이렇듯 부부가 가정에서 공동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면 그것은 부부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균형은 곧바로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는데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받은 폴을 통해 로렌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적인 애정관계는

서로 각각의 개체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어머니와 똑같은 속성의 정신적 매력이 강한 미리엄과 교체하게 되자 모델 부인과 미리엄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독점욕에서 생기는 내적 갈등이 폴과 미리엄과의 갈등을 재촉하게 된다.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이 두 요소가 조화로움을 찾은 뒤가 아닌 분열 상태에서의 그들의 성적 접촉은 미리엄으로서는 그녀의 정신을 폴의 신체에 희생시킨 결과를 빚고, 폴은 그의 신체를 미리엄의 정신에 희생시키는 결과를 빚어서 이 두 연인은 의식의 분열과 갈등을 되풀이하고 결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정신적인 면보다 육체적인 면을 강조하는 폴이 미리엄과 성적 만족감에 실패한 후 행하는 클라라와의 육체적 접촉은 잠시 동안은 그녀와의 육체적 합일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 두 남녀 사이에서 아무런 정신적 바탕이 없이 행하는 일시적인 성적 유희는 이윽고 정신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들은 헤어지게 된다.

폴은 어머니에게 자아를 예속 당한다. 따라서 미리엄에 대한 사랑은 껍데기만의 사랑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가 각자의 개별성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균형을 잃은 사랑이며, 파멸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정신과 육체가 함께 갖추어진 사랑만이 성스러운 사랑이며,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개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려면 대립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은 타인의 개체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스스로도 독립된 자아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렐 부인은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자식들을 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칼라에 대한 우월성을 신봉한 나머지 가난하면서도 상업직만을 동경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녀의 열망이 아이러니일 수 있으나, 하층계급의 생존 수준을 능가하려는 집념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열망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폴의 아버지 모렐은 인간정신의 추락의 표본으로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렐 부인과의 결혼생활이 계급간의 편견 이상으로 비참하게 묘사되고 바로 이 지나치게 중산층에의 의지를 두둔하는 부르주아의 시각 때문에 그의 생명력이 가려져 있음을 보게 된다.

로렌스 자신이 그랬듯이 이 소설에서 폴 또는 ‘중간자(Lawrence 490)’로 남아서 단편적이고 편협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그 정신의 세계는 자아추구의 비중을 이성에게만 집중할 때 자신을 편협하게 한정하고 자기를 경계하면서 로렌스가 폴을 통해서 전개해 나간 개인적 성장의 추구, 이것이 로렌스가 지향했던 세계이다.

아들의 정서적 발달에 대한 모성애의 해로운 영향과, 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사랑 간의 분열(Schorer 77)”로 인하여 나중에는 “폴이 죽음을 향해 표류하게 된다(Huxley 78)”는 당초의 내용과는 다르게 소설을 끝냄으로써 폴이 걸어온 역정으로 보아 “소설의 의도하는 실제 사이에 그 필연성이 결핍되고 있다(Schorer 78)”는 지적도 있어 왔으나, 그가 모렐 부인의 아들이었던 것과 같이 미리엄과 클라라와의 인연의 관계라는 심리적 긴장 속에서 폴이 회구하고 있었던, 이른바 탈이성적이고 자아의 집착에만 머물지 않는 생명력이 실재하는 존재로서 그가 맞이하고자 한 그 세계는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고독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세계를 외면하고 싶었다고 해야겠다. 이제 그는 이 세

상에 돌아와, 말하자면 미분화된 상태에서 생명력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도시로 향해 그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시도 했다 할 것이다.

로렌스가 이 소설을 일러 “It's the end of my youthful period(Moore 205).”라고 하였듯이, 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예비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I daren't sit in the world without a woman behind me(Huxley 93).”라는 로렌스의 말처럼 폴은 새로운 반려가 될 여성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서 주인공 폴은 그의 영혼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어머니와 그의 연인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온갖 낡은 관습에 흡수되거나 마비 당하지 않고, 그의 고유한 예술가로서의 창조적 삶의 길을 추구함으로써 자아를 회복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찾아 나갔다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동선. *D. H. Lawrence*, 형설출판사., 1982.

Alldritt, Keith. *The Visual Imagination of D. H. Lawrence* London: Edward Arnold., 1971.

Beal, Anthony. *D. H. Lawrence*, 을유문화사., 1986.

Betskey, Seymour. *The Achievement of D. H. Lawrence*,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53.

Chambers, Jessie. *D. H. Lawrence: A personal Reco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Daleski, H. M. *The Forked Flame*: London, Faber and Faber., 1965.

Hillman, Rodney. *D. H. Lawrence: Sons and Lovers*, British Council., 1976.

Hopsbourn, Philip. *A Reader's Guide to D. H. Lawrence*, London: Thames and Hudson., 1981.

Huxley, Aldous. *The Letters of D. H. Lawrence* London: William
heinemann., 1934.

Lawrence, D. H. *The Collected Poems of D. H. Lawrence* London:
Secker Martin Lte., 1928.

Lawrence, D. H. *Sons and Lovers*. London: penguin books Ltd., 1979.

Lawrence, Frieda. *Not I, But The wind*, London: Heinemann., 1939.

Moore, Harry T. *Collected Letters of D. H. Lawrence Vol 1*. London:
Heinemann., 1962.

Moynahan, Julian *Sons and Lovers: Text, Background and Criticism.*,
1970.

Murry, J. M. *D. H. Lawrence: Sons and Lover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4.

Murry, J. Middleton. *D. H. Lawrence: Son of Woman* London: Jonathan
Cape., 1954.

Niven, Alster. *D. H. Lawrence: The Writer and His Work*, Essex:
Lonman Group Ltd., 1980.

Roberts, W. and Moore, H. T. *Phoenix II: Uncollected, Unpublished, and Other Prose Works* New York: The Biking Press., 1968.

Sager, Keith. *The Art of D. H. Law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Salgado, Gamini. *D. H. Lawrence: Sons and Lovers*: Edward Arnold., 1982.

Sanders, S. *D. H. Lawrence: The World of the Major Novels*, Plymouth: Clark. Double & Brendon., 1973.

Schorer, Mark. *Technique as Discovery in William J, Handy and Max westbrook*, Twentieth Century Criticism: The Major Statements New Delhii: Light and Life pub., 1974.

Spilka. Mark *The Novel Ethic of D. H. Lawrence*. Bloomington: Debson books., 1958.

Yudhishter. *Conflict in the Novels of D. H. Lawrence*, Edinburgh: Oliver & Boyd., 1969.